

<특집 II: 석유화학 채산성 분석>

미·일 수출 자제 중국 수출 큰폭 증가, 바닥권 탈출 약상승 기조

91년 삼성·현대의 NCC 및 합성수지 상업생산으로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던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올들어 동남아·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내수도 매우 순조로와 NCC 가동률이 100%를 웃도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호황의 이면에는 석유화학기업들이 거론하기조차 심히 꺼려하는 변동비 수준의 제품가격 형성으로 외화내빈의 경영·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92년 한해를 전망하고, 또 신규 크래커 및 합성수지 기업인 삼성·현대의 채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동남아의 석유화학제품 수급과 그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을 전망해 본다.

미국 NPRA주최 국제석유화학회의에 참석한 미국·유럽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석유화학 시장상황이 계속 불투명, 가동률이 85~90%선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에틸렌가격은 파운드당 20센트 이하로, Quantum·West Lake·Phillips 등이 지난해 신규 플랜트를 가동, 미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2100만톤(450억파운드)으로 증가, 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4/4분기에는 약간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으나, 파운드당 20센트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도 2~6월 각사의 정기보수로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가동률이 9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유럽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동남아 수출로 활로를 모색중이며, 미국은 91년 중국 수출이 PE 140%, PP 170%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에 못지않게 미국·유럽 기업들도 중국·동남아시아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가격이 일정선(톤당 700달러선 수준)을 넘으면 가동률을 높여 수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올 3/4분기 이후 중국·동남아시아시장을 놓고 미국·유럽·일본과 한판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92년 1/4분기(1~3월) 가동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틸렌 생산량이 91년 1/4분기 대비 121% 증가, 68만100톤에 달했으며, 합성수지는 118만7300톤으로 53%, 합성원료는 45만8300톤 44%, 합성고무 5만7000톤 11% 등 3대부문 생산량이 170만2600톤으로 48% 증가했다.

또 공장가동률도 NCC가 107%(91년 1/4분기 100%)에 달했고, 합성수지 96%(82%), 합성원료 100%(86%), 합성고무 93%(86%) 등 3대부문 평균가동률이 97%(84%)로 91년 동기대비 13% 높아졌다.

이러한 생산량 및 가동률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86~90년 5년간의 실적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에틸렌·프로필렌을 비롯 합성수지 가격을 비교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급 또한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공부를 비롯 석유화학협회, 대림산업 등 일부 석유화학업체들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지역 수출호조도 수출량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수출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수출증가율이 계속될 것인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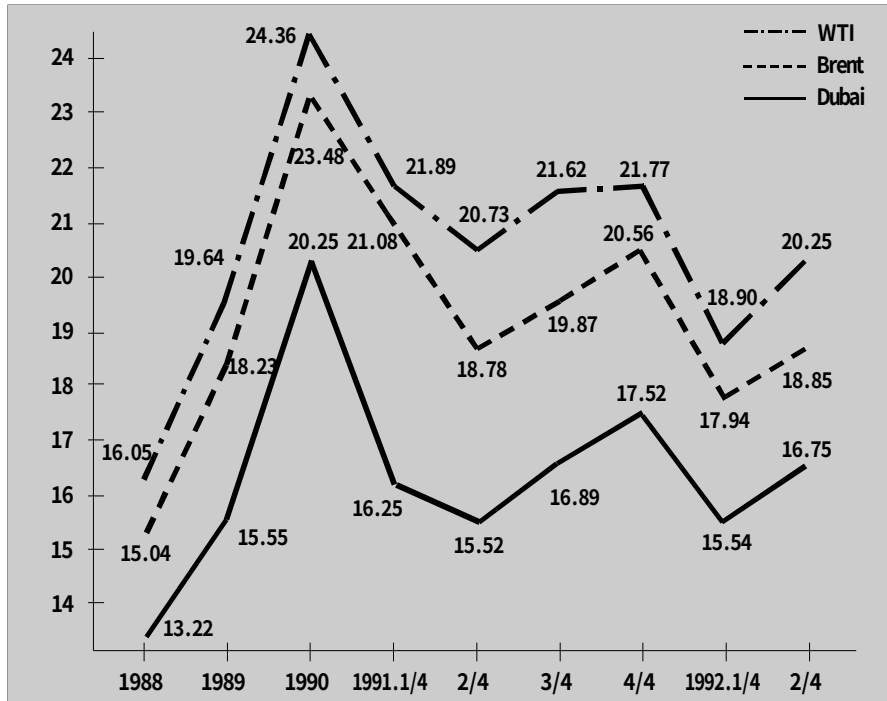
상공부가 석유화학 호황을 주장하기 위해 각 언론기관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동안 중국

수출은 8100만달러로 91년 동기대비 253.8% 증가했다.

이중 6대 범용수지 수출은 508.7% 증가해 5800만달러에 달했고, 기초유분 및 SM 등 중간원료 수출이 104.7% 증가한 1400만달러 실적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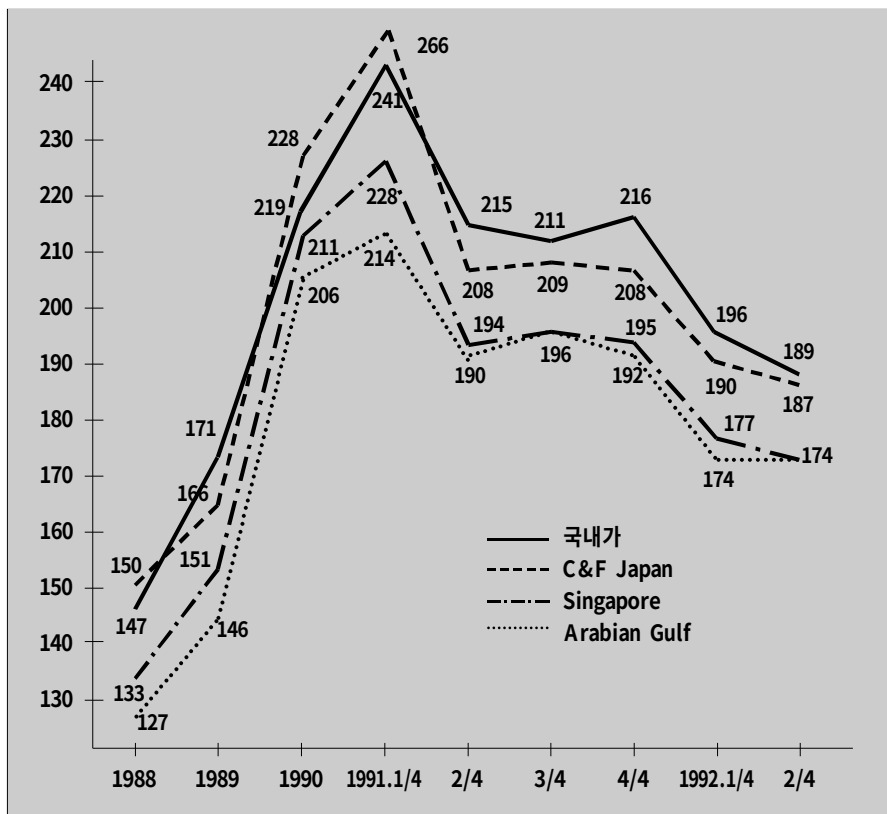
<그림1> 원유 가격 추이

(단위:달러/배럴)



<그림2> 나프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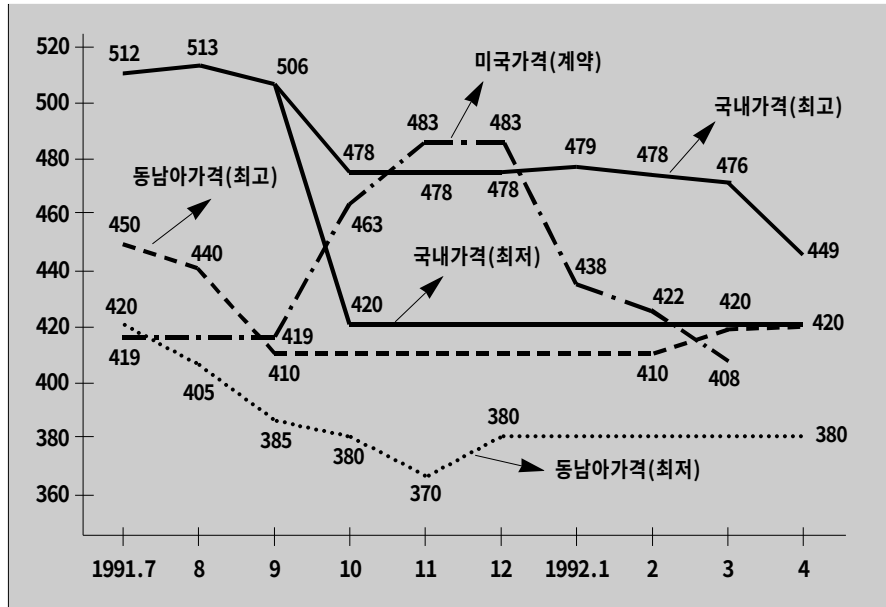
(단위:달러/톤)



상공부는 덧붙여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올해 석유화학제품 중국 수출액이 3억3000만달러에 달하고, 무역수지도 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중국의 수요나 가격동향 등 변수를 외면한 것으로 1/4분기 동안의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한 가공의 희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림3> 에틸렌 가격 추이

(단위:달러/톤)



중국의 92년 GNP 성장률 6%(예상)는 90년의 5% 보다는 높으나, 91년의 7% 보다는 낮은 것으로 실제 석유화학제품 수입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중국의 개방화 및 경제건설이라는 변수가 작용, GNP 성장률보다 5~6배 정도 더 높은 증가를 예상할 수는 있다.

91년 중국은 PE 65만톤, PP 56만톤, PS 39만톤 등 합성수지 160만톤을 수입, 90년의 PE 35만톤, PP 56만톤, PS 25만톤 등 총 116만톤 대비 37.9% 늘었다.

특히, 중국은 4/4분기에만 PE 30만톤, PP 21만톤, PS 13만톤 등 전체 수입량의 40%를 수입, 최근들어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 동남아 수출은 물량 증가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또 가격이 어느 선까지 오르고 가격에 따라 미국·일본의 석유화학기업들이 가동률을 조정, 동남아시아 수출에 다시 나설 것인가 등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분기 석유화학 가동률 97%선 중국 관세율 인하따라 수출 급증

<표1>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수요현황

(단위:1000톤,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세계	총 생산능력	62,830	66,942	71,025	74,362	78,815	81,930
신 증 설	미주	—	1,605	1,335	570	780	870
	유럽	—	1,275	1,130	1,210	1,350	395
	중동	—	80	30	457	820	555
	아시아	—	1,152	1,588	1,100	1,503	1,295
	계	—	4,112	4,092	3,337	4,453	3,115
수요		56,782	58,405	60,427	63,078	65,599	68,161
가동률		90	87	85	85	83	83

자료:TECNON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수출과 같이 변수가 많지는 않으나,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20% 이상의 증가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과도성장에 따른 물가양등을 우려,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이 7~8%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한국의 GDP 성장률이 91년 8.6%에서 92년 7.8%로 떨어질

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본지의 설문조사 결과도 경제성장률을 7~8%로 예상한 응답자가 57.1%이고, 5~6%로 응답한 비율도 28.6%나 나왔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요증가율은 10% 선을 넘지 않을 전망이며, 일부 특수를 고려한다 해도 15%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가 및 나프타 가격은 현상태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리비아사태나 아프카니스탄 주변의 회교권 움직임, 러시아 남부의 회교국들의 영토분쟁, 러시아의 원유 수출 등 변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원유가나 나프타가격을 급상승시키거나 급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오히려 쿠웨이트의 원유 생산량 증가 및 LPG 100만톤 생산, 나프타 수출 등 가격하락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2> 한국의 에틸렌 수급전망

(단위:1000톤,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생 산 능 력		1,626	2,853	3,290	3,290	3,290
국 내 수 요	A	1,812	1,984	2,173	2,379	2,605
	B	2,086	2,828	3,022	3,130	3,130
과 부 족	A	(186)	869	1,117	911	685
	B	(460)	25	268	160	160
가 동 률	A	111	70	66	72	79
	B	128	99	92	95	95

A:국내수요 KIET전망 B:소비능력 기준(합성수지 100% 가동)

<표3> 한국의 에틸렌 유도품 수급전망

(단위:1000톤,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LDPE	생 산 능 력	585	764	939	1,044	1,044
	수 요	422	458	498	541	587
	과 부 족	163	306	441	503	457
HDPE	생 산 능 력	828	1,083	1,093	1,093	1,093
	수 요	488	536	589	648	712
	과 부 족	340	547	504	445	381
S M	생 산 능 력	756	1,135	1,135	1,135	1,135
	수 요	856	963	1,083	1,219	1,371
	과 부 족	(100)	172	52	(84)	(236)
기타(에틸렌환산)		661	721	783	853	929
에 틸 렌 수 요 계		1,851	2,029	2,223	2,437	2,672

국제 원유가격은 최근 큰 변동이 없이 약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88년 배럴당 13.22달러 선에서 89년 15.55달러, 90년 20.25달러까지 폭등했던 원유가격(Dubai유 기준)은 걸프전 종결로 91년 1/4분기 16.25달러, 2/4분기 15.52달러로 하락했고, OPEC의 감산 움직임에 따라 4/4분기 17.52달러로 상승한 후 2/4분기 16.50~17.00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프타가격은 최근 수급균형이 깨져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88년 톤당 150달러(C&F Japan 기준)에서 89년 166달러, 90년 228달러, 91년 1/4분기 266달러로 치솟은 후 2/4분기 이후 208달러 수준을 보였으며, 올들어 1/4분기 190달러, 2/4분기 187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나프타가격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가동률 상승으로 구매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유럽·일본 등이 감산을 지속, 상승곡선을 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본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92년 평균가격이 180~190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 및 나프타가격 안정에 따라 에틸렌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가격은 지난해 3/4분기 톤당 512~506달러 선에서 4/4분기 478~420달러로 내렸고, 올 1/4분기에도 비슷한 가격 수준을 보였으며, 2/4분기 들어 449~420달러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남아가격은 91년 4/4분기 이후 410~38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 3월 이후 최고가격이 420달러로 약상승했으나 국내가격과 톤당 70~40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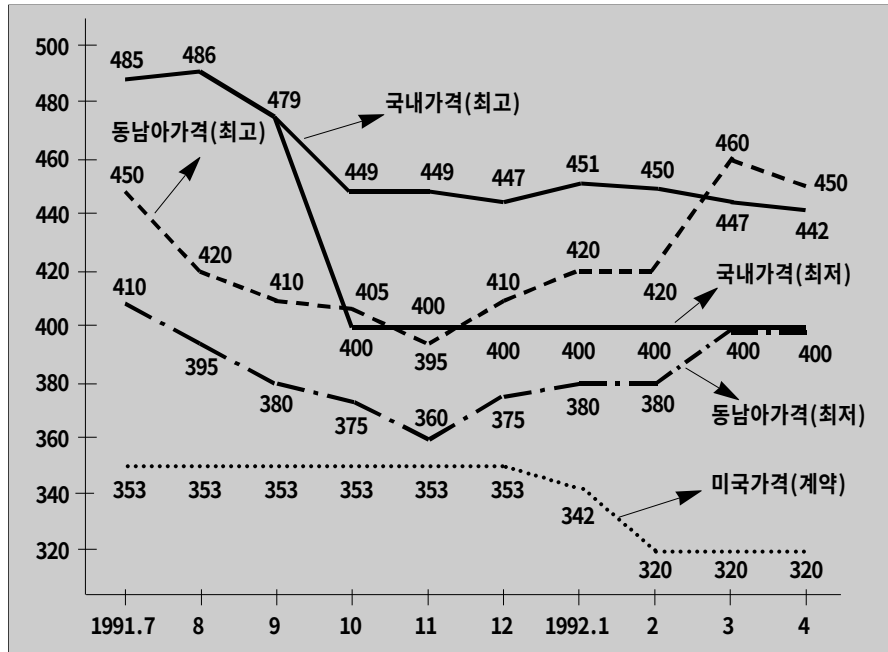
이는 올해 세계 총 생산능력을 7102만5000톤으로 볼 때, 수요가 6042만7000톤에 머물러 가동률이 85%에 불과하고 올해 신·증설 물량도 409만톤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합성수지 수입증가로 평균 가동률이 1~2% 올라갈 수는 있으나, 유럽·미국·일본 등이 계속 감산을 실시하고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내수만을 고려할 때, 올해 생산능력 285만3000톤 기준 수요가 198만4000톤에 불과 가동률이 70%에 불과하며, 소비능력(합성수지 등의 수출을 가정한 100% 가동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는 수요 282만8000톤으로 99%의 가동률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4> 프로필렌 가격 추이

(단위:달러/톤)



<표4> 한국의 폴리올레핀 수급실적 및 전망

(단위:톤)

구 분	연도	생 산	판 매				재 고	수 입	국내수요
			내 수	로 칼	직수출	계			
LDPE	1990	370,970	316,156	38,113	15,217	369,486	15,604	77,781	432,050
	1991	500,368	346,791	71,245	71,400	489,436	49,608	47,754	445,790
	1992	658,000	380,000	80,000	233,000	693,000	NA	35,000	460,000
HDPE	1990	495,245	310,657	60,389	125,594	496,640	29,162	33,210	404,256
	1991	696,171	399,970	47,292	215,403	662,665	55,290	24,350	471,612
	1992	831,000	450,000	20,000	381,000	851,000	NA	20,000	470,000
P P	1990	616,113	455,011	77,121	74,566	606,698	38,685	15,824	547,956
	1991	814,338	428,310	94,115	248,771	771,196	81,325	13,874	536,299
	1992	979,500	450,000	120,000	424,500	994,500	NA	15,000	570,000

자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그러나 동남아 및 중국지역 합성수지 수출가격이 700달러선을 넘어서게 되면, 미국·유럽·일본 등이 가동률을 높여 수출에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국내 NCC 가동률은 85~90%선에 머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대림산업은 럭키 및 호남석유화학(7월 이후 100% 가동 전망)의 자급에 따라 NCC 가동률이 급락하고 있는데, 연초 73% 가동을 전망했으나, 중국지역 수출호조에 따라 85%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로필렌도 91년 2/4분기 톤당 486~479달러에 거래된 이후 4/4분기부터 450~400달러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정부지도가격(최고가격)이 447달러, 442달러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남아가격은 360~380달러에서 3월 이후 400달러선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울산지

역 NCC 가동률이 낮고 동양나이론의 프로판 탈수소 공장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PP 수출 호조로 프로필렌 수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다.

프로필렌 동남아가격은 5월 유공의 제1 NCC, 대한유화, 동양나이론 등의 정기보수 등으로 톤당 420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NCC 가동률이 80~85% 수준을 보이고 있어 프로필렌 수급균형이 무너진 상태인데, 하반기에는 유공의 90% 가동 및 대한유화 80% 가동, 동양나이론 80% 가동을 기준할 때 공급 25만4800톤, 수요 28만6000톤으로 3만1200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여천의 대림산업 NCC 가동률이 85%선으로 높아지고, 호남석유화학이 7월 이후 NCC를 100% 가동할 경우 여천지역 프로필렌 수급이 원활, 동남아가격이 다시 380달러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기초유분 가격의 하향안정세에 따라 합성수지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도 비교적 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한국의 프로필렌 수급전망

(단위:1000톤,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생 산 능 력		968	1,738	1,917	1,942	1,942
국 내 수 요	A	1,103	1,193	1,291	1,397	1,512
	B	1,354	1,662	1,852	2,115	2,121
과 부 족	A	(135)	545	626	545	430
	B	(386)	76	65	(173)	(179)
가 동 률	A	114	69	67	72	78
	B	140	96	97	109	109

A:국내수요 KIET전망 B:소비능력 기준

<표6> 한국의 프로필렌 유도품 수급전망

(단위:1000톤,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P P	생 산 능 력	1,002	1,251	1,419	1,432	1,432
	수 요	548	598	653	714	779
	과 부 족	454	653	766	718	653
A N	생 산 능 력	81	90	90	180	180
	수 요	242	251	260	269	279
	과 부 족	(161)	(161)	(170)	(89)	(99)
기타(프로필렌환산)		243	269	297	330	366
프로필렌수요계		1,080	1,168	1,264	1,369	1,484

92년 국내 LDPE 수급을 보면, 생산 65만8000톤, 수입 3만5000톤 등 총공급 69만3000톤에 내수 38만톤, 로칼 8만톤, 직수출 23만3000톤 등 총수요 69만3000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4분기 18만6300톤을 생산해 내수 9만3600톤, 로칼 2만9900톤, 수출 7만2300톤 등 총수요가 19만5800톤으로 91년 동기 9만2100톤 대비 107.2% 늘어나는 등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지역 공급이 404만3000톤으로 수요 452만2000톤에 비해 47만9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가격은 약상승세를 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미국의 공급과잉이 심각, 수출가격이 700달러를 넘어설 경우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올해는 톤당 수출가격이 650~670달러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가격은 91년1월 내수 87만1000원, 로칼 97만2000원을 보인 이후 큰폭으로 하락, 내수가격은 6월 80만5000원, 10월 67만9000원, 92년1월 65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로칼가격도 91년6월 68만7000원에서 10월 63만3000원, 92년1월 60만8000원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92년 LDPE 평균가격은 톤당 내수 65만~68만원, 로칼 62만~64만원, 수출 55만~58만원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DPE는 92년 생산 83만1000톤, 수입 2만톤 등 총 85만1000톤을 공급하고 내수 45만톤, 로칼 2만톤, 직수출 38만1000톤 등 총수요 85만1000톤으로 수급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1/4분기에는 생산 27만4500톤, 내수 13만9500톤, 로칼 1만200톤, 수출 12만3300톤 등 총수요 27만3000톤으로 판매가 호조, 재고도 5만5400톤으로 91년 동기대비 4.0% 줄어 들었다.

다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공급 422만9000톤에 수요 465만톤으로 부족량이 22만톤에 불과, 수출이 계속 늘어날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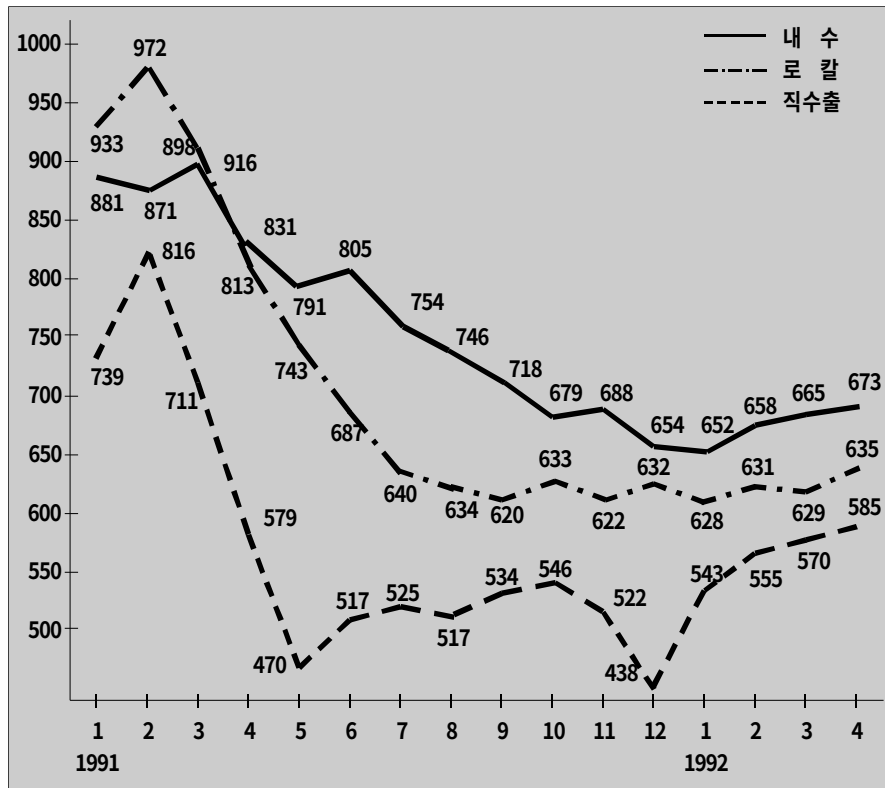
가격도 91년1월 내수·로칼 81만원, 수출 71만2000원에서 9월 내수 56만7000원, 로칼 51만6000원, 수출 52만2000원으로 하락했고 현재도 이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92년 HDPE 평균가격은 내수 48만~50만원, 로칼 45만~46만원, 수출 50만~53만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P는 92년 생산 97만9500톤, 수입 1만5000톤 등 총공급 99만4500톤에 내수 45만톤, 로칼 12만톤, 수출 42만4500톤 등 총수요 99만4500톤으로 수급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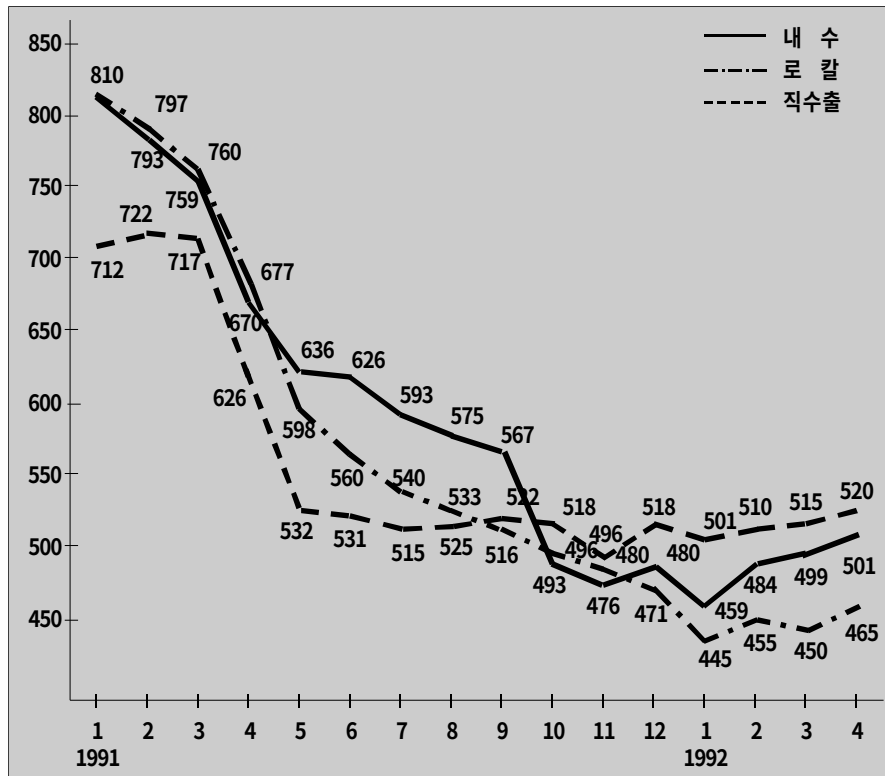
<그림5> LDPE 가격 추이

(단위:1000원/톤)



<그림6> HDPE 가격 추이

(단위:1000원/톤)



합성수지 가격 약상승세 지속 미국·일본 대치따라 시세 좌우

올 1/4분기 실적을 보면, 31만300톤을 생산, 내수 13만700톤, 로칼 3만2000톤, 수출 14만7600톤 등 수요 31만300톤으로 91년 동기대비 99.8% 늘었다.

그러나 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공급 331만9000톤, 수요 328만6000톤으로 3만3000톤이 과잉, 계속적인 수출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격도 91년2월 내수 86만원, 로칼 80만7000원, 수출 77만3000원 수준을 보인 이후 8월 내수 70만6000원, 로칼 59만6000원, 수출 51만1000원으로 떨어졌고, 올 1월에는 내수 53만4000원, 로칼 52만8000원, 수출 50만2000원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92년 평균가격은 내수 52만~55만원 로칼 52만~54만원, 수출 49만~52만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M은 국내 생산 109만톤, 수입 14만4000톤 등 총공급이 123만4000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수요는 91만톤에 불과, 32만4000톤을 수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가격은 91년8월 52만2000원에서 11월 58만1000원으로 오른 이후 올 1월 54만7000원으로 떨어졌고 3월 54만8000원으로 약상승했다.

로칼가격은 91년8월 44만7000원에서 10월 53만2000원으로 오른 이후 92년1월 47만1000원으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42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표7> 아시아태평양지역 LDPE 수급전망

(단위:1000톤,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증가율
일 본	공 급	1,514	1,573	1,589	1,604	1,620	1,636	1.6
	수 요	1,484	1,543	1,571	1,599	1,627	1,656	2.2
	과부족	30	30	18	5	(7)	(20)	—
중 국	공 급	500	570	650	697	747	800	9.9
	수 요	900	1,017	1,017	1,265	1,391	1,530	11.2
	과부족	(400)	(447)	(500)	(568)	(644)	(730)	—
동남아	공 급	980	1,191	1,441	1,589	1,749	1,924	14.4
	수 요	1,133	1,190	1,244	1,331	1,423	1,518	6.0
	과부족	(153)	1	197	258	326	406	—
서남아	공 급	144	173	208	208	208	208	7.6
	수 요	261	292	326	346	367	390	8.4
	과부족	(117)	(119)	(118)	(138)	(159)	(182)	—
오 세 아니아	공 급	150	152	155	174	196	220	8.0
	수 요	216	223	231	238	245	253	3.2
	과부족	(66)	(71)	(76)	(64)	(49)	(33)	—
계	공 급	3,288	3,659	4,043	4,272	4,520	4,788	7.8
	수 요	3,994	4,265	4,522	4,779	5,053	5,347	6.0
	과부족	(706)	(606)	(479)	(507)	(533)	(559)	—

자료:일본통산성 1990.5

<표8> 아시아태평양지역 HDPE 수급전망

(단위:1000톤,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증가율
일 본	공 급	1,970	2,056	2,131	2,210	2,291	2,375	3.8
	수 요	1,970	2,056	2,131	2,210	2,291	2,375	3.8
	과부족	0	0	0	0	0	0	—
중 국	공 급	400	447	500	531	565	600	8.4
	수 요	650	717	790	869	955	1,050	10.1
	과부족	(250)	(270)	(290)	(338)	(390)	(450)	—
동남아	공 급	1,117	1,494	1,973	2,130	2,297	2,478	17.3
	수 요	1,270	1,361	1,458	1,568	1,687	1,814	7.4
	과부족	(153)	133	515	562	610	664	—
서남아	공 급	69	80	93	104	118	133	14.0
	수 요	111	121	132	145	159	174	9.4
	과부족	(42)	(41)	(39)	(41)	(41)	(41)	—
오 세 아니아	공 급	150	152	155	163	171	180	3.7
	수 요	127	133	139	144	150	156	4.2
	과부족	23	19	16	19	21	24	—
계	공 급	3,706	4,229	4,229	4,852	5,442	5,766	9.2
	수 요	4,128	4,338	4,650	4,936	5,242	5,569	6.2
	과부족	(422)	(159)	220	202	200	197	—

국내 SM 생산업체들은 SM 거래선을 고정,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의 거래선이 제일 모직 밖에 없는 상태이고, 한남화학과 효성바스프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전량 수입하겠다고 경고, 가격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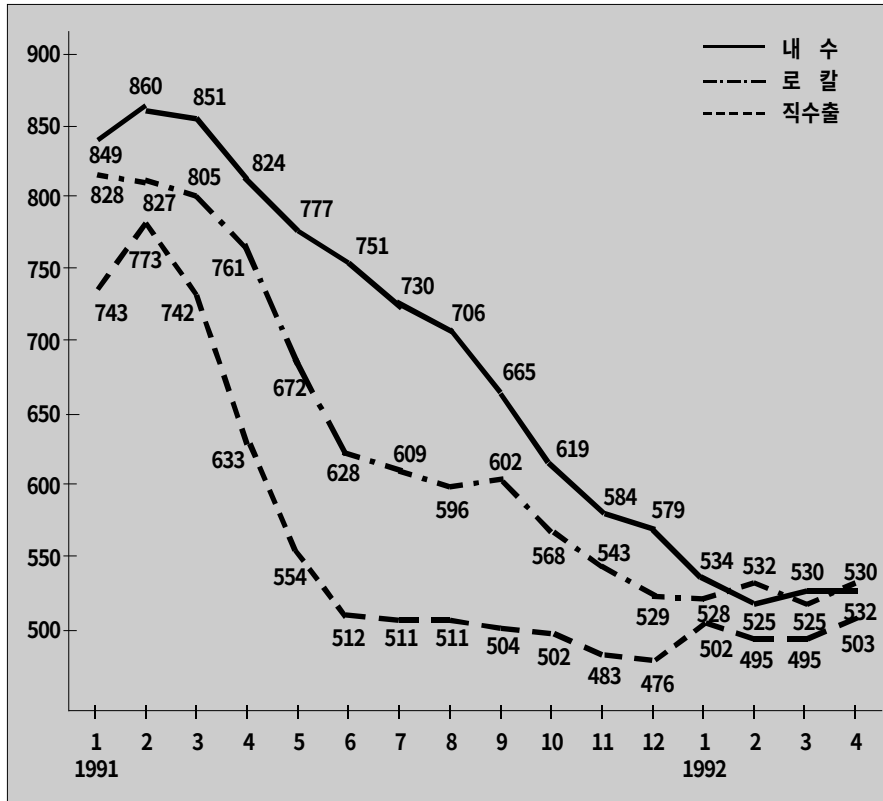
따라서, SM가격은 내수 54만~56만원, 로칼 44만~46만원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O/G는 세계 수급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품목으로 EO는 세계 총 생산능력이 1300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수요는 1000만톤선에 불과, 300만톤 정도가 과잉이고, EG는 세계 총 생산능력 826만톤에 수요 622만톤으로 평균가동률이 7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동·북미 등에서 115만톤 정도를 수출하고 아시아·서유럽이 수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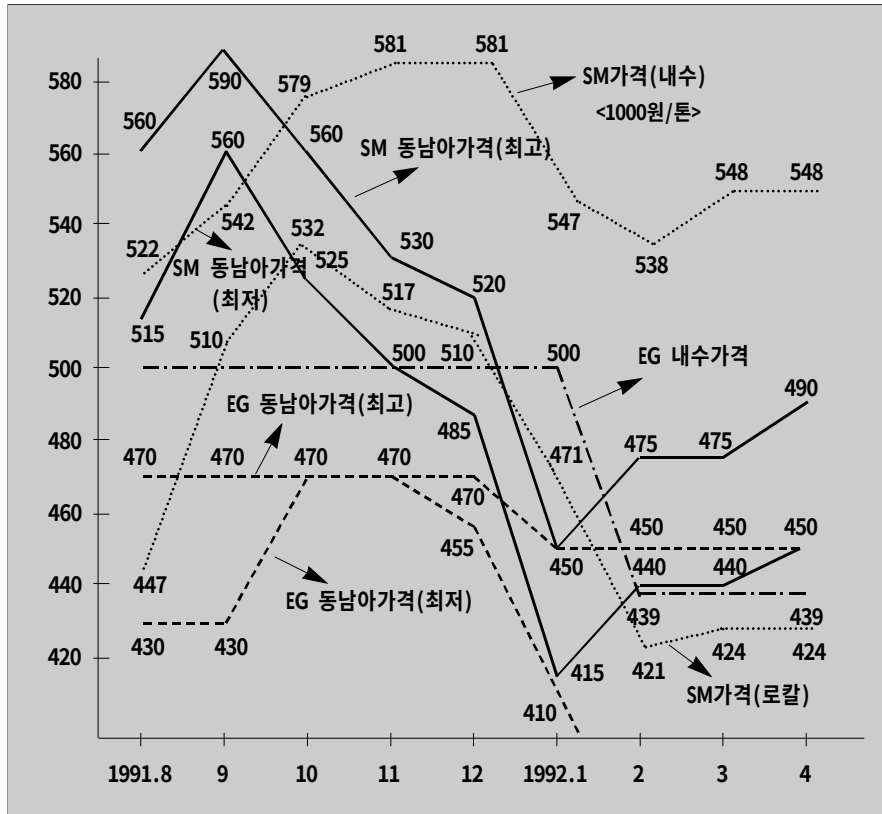
<그림7> PP 가격 추이

(단위:1000원/톤)



<그림8> SM/EG 가격 추이

(단위:달러/톤)



국내에서는 호남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경쟁, EG 내수가격은 톤당 500달러에서 439달러 수준으로 하락, 거래되고 있으며, 동남아 시세도 470달러에서 300달러선으로 폭락, 거래되고 있다.

<표9> 아시아태평양지역 PP 수급전망

(단위:1000톤,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증가율
일 본	공 급	1,082	1,136	1,181	1,227	1,276	1,326	4.2
	수 요	977	1,041	1,086	1,132	1,180	1,231	4.7
	과부족	105	95	95	95	95	95	—
중 국	공 급	430	430	430	443	456	470	1.8
	수 요	550	589	630	693	763	840	8.8
	과부족	(120)	(159)	(200)	(250)	(307)	(370)	—
동남아	공 급	990	1,190	1,404	1,529	1,662	1,807	12.8
	수 요	1,063	1,131	1,202	1,287	1,376	1,471	6.7
	과부족	(73)	59	202	242	286	335	—
서남아	공 급	62	101	164	164	164	164	21.5
	수 요	179	185	192	204	217	231	5.2
	과부족	(117)	(84)	(28)	(40)	(53)	(67)	—
오 세 아니아	공 급	130	135	140	152	166	180	6.7
	수 요	163	169	176	183	190	197	3.9
	과부족	(33)	(34)	(36)	(31)	(24)	(17)	—
계	공 급	2,694	2,992	3,319	3,515	3,724	3,946	9.9
	수 요	2,932	3,115	3,286	3,499	3,726	3,970	6.2
	과부족	(238)	(123)	33	16	(2)	(24)	—

<표10> MEG 지역별 수급현황

(단위:1000톤)

구	분	1991	1994	1997
수 급	세계생산능력	8,260	10,230	10,900
	세 계 수 요	6,220	7,010	7,780
	평 균 가 동 률	74%	69%	71%
수 입	동 아 시 아	787	887	1,024
	서 유 럽	224	230	294
	서 아 시 아	203	180	202
	일 본	92	115	133
수 출	중동/아프리카	556	744	788
	북 미	482	562	766
	남 미	107	57	53
	동 유 럽	26	49	46

자료: Tecnon UK

92년 평균가격 예측

이상에서 살펴본 바, 현재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바닥권에 다다른 감이 짙고, 거의 변동비 수준에서 거래, 약간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일본의 가동률 조정으로 인한 생산감소, 합성수지 가격이 700달러(55만3000원 선)를 넘어서게 되면 이들이 다시 가동률을 높여 수출에 나서리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수요 호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큰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현 시세에서 20~40달러가 상승되는 선에서 92년 평균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아지고 있다.

물론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고, 한편으로는 무모하기까지 한 것은 사실이나, 채산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의 시세동향을 분석,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동률 향상에 따라 약상승할 것으로 보아 톤당 14만8200원(190달러)을 평균가격으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유분인 에틸렌은 국내 NCC 가동률이 90%를 넘기 힘들다는 점에서 평균가격이 450달러를 상회하기는 어렵고, 4월 최저가격인 420달러 이하 거래는 없을 것으로 보아 평균 435달러(34만3650원)로, 프로필렌은 NCC 가동률 90% 상황에서 울산지역 수급에 문제가 있어 약상승될 것으로 예측, 420달러(33만1800원)를 평균가격으로 잡았다.

SM은 국내 수급보다는, 일본 등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세가 강하나, 최근들어 가동률을 조정하면서까지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남·효성의 가격담합 불인정 방침에 따라 국제가격을 크게 상회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 내수 54만5000원, 수출 45만원으로 예측했다.

합성수지는 최근 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가격상승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수출가격이 최저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톤당 670~680달러가 넘어서게 되면 중국 수출이 주춤할 가능성이 커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예측했다.

<표11> 석유화학 원료 및 기초유분제품 1992년 평균가격(예상)

(단위:원)

구 분	제 품	내수가격 평 균	수출가격		
			수 출	로 칼	평 균
원 료	나 프 타	148,200	—	—	—
	L P G	—	—	—	—
기 초 유 분	에 틸 렌	343,650	316,000	—	316,000
	프 로 필 렌	331,800	300,200	—	300,200
	벤 젠	268,600	268,600	—	268,600
중 간 원 료	S M	545,000	—	450,000	450,000
	E O	—	—	—	—
	E G	450,000	—	—	—
합 성 수 지	L D P E	665,000	565,000	630,000	578,000
	H D P E	490,000	515,000	455,000	512,000
	P P	535,000	505,000	530,000	510,500

주) ① 환율 790원 적용

② 평균수출가격은 수출과 로칼물량 비율을 LDPE 4:1, HDPE 19:1, PP 7:2로 예상 계산한 것임

물론 4/4분기 이후 현 가격보다 톤당 50달러 안팎으로 상승, 700달러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물량기준으로 92년 전체의 20%선에 머물 것으로 보아 1/4분기와 상쇄한다 해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합성수지 평균 수출가격 산정시 물량기준은 LDPE는 직수출 80% · 로칼 20%, HDPE는 직수출 95% · 로칼 5%, PP는 직수출 77.8% · 로칼 22.2%로 했다.

이것은 올해초 각 기업들의 내수 · 직수출 · 로칼수출 계획물량을 종합 · 평균한 것이다.

<화학저널 1992/5/15>